

광주 사후면세점 259곳 외국인 관광객들도 몰라

중국인 관광객 기대감에 6년새 29배 급증...관리는 허술

관광지도·도심내 환급창구 설치 등 자치구 활성화 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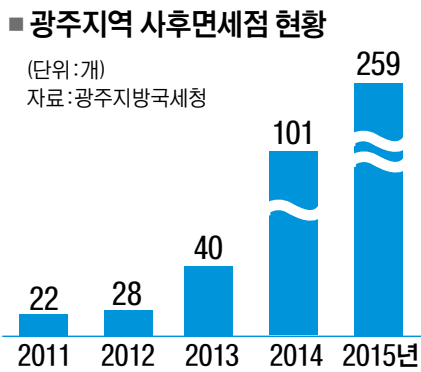
광주지역 사후면세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온 광주시나 각 자치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후면세 즉시환급' 제도의 시행으로 사후면세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나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후면세점은 지난 2010년 9곳, 2011년 22곳, 2012년 28곳, 2013년 40곳, 2014년 101곳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59곳으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지난해 기준)는 의류매장이 108곳, 스포츠 용품 35곳, 전자제품 24곳, 건강보조식품 17곳, 귀금속 15곳, 화장품 14곳, 기타 22곳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00곳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72곳, 동구 63곳, 남구·북구 각 12곳 순으로 집계됐다.

사후면세(TAX FREE)는 공항 등에서 출국 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사전면세(DUTY FREE)와 달리 등록된 매장에서 세금을 붙여 3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 뒤 공항 환급 창구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후면세 즉시환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20만원 미만의 물품은 부가 가치세(10%)와 개별 소비세(5~20%)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의 환급 창구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면서 사후면세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는 타 광역시에 비해 사후면세점도 적을 뿐더러 쇼핑과 관광 도시를 외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온 광주시나 자치구가 홍보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등록업체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사후면세점은 서울 5025곳, 부산 1100곳, 인천 379곳, 대구 345곳 등이다.

때문에 자치구별 사후면세점 확보와 사후면세점 지정업체 홍보, 도심 내 환급창구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구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지난해 8월 충장로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8곳의 매장을 추가로 지정할 정도가 전부다.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장당 월 평균 이용 건수가 3~4건에 그치는 등 현재까지 사후면세점 지정 효과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충장로상인회 최현덕 사무장은 "아직까지 지정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지자체가 여행사와 협약을 맺거나 사후면세점 관광지도 등을 만들어 홍보하면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사후면세점 설명회를 열고 각 자치구 관광과와 경제과에서 공동으로 사후면세점 확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광홍보책자 제작시 사후면세 지정업체 안내나 도심 내 환급창구 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포토존·프리허그...달라진 졸업식 풍경

광주북부경찰 초·중·고 96개교 강압적 뒤돌이 예방 활동

28일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첫 졸업식이 열린 북구 옹동 광주과학교에 이색 포토존이 설치됐다.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와 포순이는 포토존 앞에서 프리허그를 해주며 학생들의 새 출발을 격려했고,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환한 미소로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선물했다. 경찰들은 또 사탕을 나눠주며 달콤한 졸업식 분위기를 만들었다.

광주북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앞두고 달걀과 밀가루 투척, 옷 찢기 등 강압적 졸업식 뒤돌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순찰차와 경찰관들을 배치해 졸업식장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보다 경찰과 함께하는 포토존을 운영해 자연스럽게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북부경찰서는 본격적인 졸업시즌인



오는 2월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지역 313개 초·중·고교 중 북구에 있는 96개교에서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강압적 졸업식 뒤돌이 및 학교폭력 예방·선도' 활동에 나선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 좋아요”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연못)에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된 원앙 무리가 날아들어 노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에...전남대에...원앙떼 잇따라 발견

“무등산에 원앙이 무리지어 나타났어요!”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원앙이 무리지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천연기념물(327호)로 지정된 원앙은 2마리씩 짝지어 노는 모습은 종종 목격되지만, 수십여 마리가 떼를 지어 서식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특히 부부간 좋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은 예부터 길조로 여겨지고 있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도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원앙 30여마리가 무리지어 활동하는 모습은 무

등산 풍암제, 제1수원지, 제4원지에서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원앙들은 무등산 주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산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캠퍼스 연못에서도 원앙 20여 마리가 노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지만 무등산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원앙과 같은 무리 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앙이 여름철에는 산간지역에 흩어져 번식활동을 한 뒤 겨울철 먹이활동을 위해 하천으로 내려오는 습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목격된 원앙 무리가 예

초부터 무등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국립공원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간지역에서 2마리씩 번식활동을 하다가 새끼들이 큰 이후 보란듯이 물가로 내려오면서 쉽게 눈에 띈 것 같다”면서 “같은 시간대 무등산과 전남대 쪽을 관찰하거나 원앙에 표식을 달지 않고서는 동일한 원앙 무리라고 단정하긴 힘들고,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조사 없이 단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INVITATION

‘만원으로 집짓기’
영광이 캠페인 그 후 이야기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을 겨울, 영광이네는 추위 걱정없는
사랑의 집을 선물받았습니다.

전남지역 주거빈곤가정
정기후원 চাল락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전남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꿈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061-921-4397/061-274-0041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 농협 301-0081-6148-11